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정원지 베드로 (1846-1866)



‘원조’로도 불리는 정원지는 충청도 진잠(鎭岑)의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후 그는 전주 부근의 수넬마루에서 살다가 금구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1866년에는 전주 성지동 조화서의 집에 셋방을 얻어 노모와 형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았다.

1866년 12월 5일 조화서가 체포되던 날, 정원지는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잠시 동정을 살피러 마을로 내려왔다가 붙잡혀 전주 감영 전면옥에 갇히게 되었다. 지극한 효성으로 노모를 생각하며 여러 번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함께 잡혀 온 성지동 교우들의 위로와 권면에 힘입어 끝까지 혹형과 고문을 참아 내었다. 마침내 12월 13일, 그는 가족에게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편지를 남기고, 전주 서문 밖 숲정사에서 5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21세였다.

성화_황숙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6(95), 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느헤 8,2-4 7.5-6.8-10

화답송 시편 19(18), 8.9.10.15 (◎ 요한 6,63c 참조)

-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 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 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12-30 (또는 12,12-14.27)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시편 34(33), 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구원의 희망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칙령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말 성경과 구성이 다른 히브리어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말 구약성경은 「말라키서」로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구세사의 흐름에 따라 구약성경을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나누고, 예언서에서 예고한 메시아를 신약성경에서 증언하는 형태입니다. 그에 비해 유대교에서는 오경(토라)이 가장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예언서는 토라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오경과 예언서를 해석한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이 성문서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오늘 제1독서인 느헤 8장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책입니다.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 뒤 귀향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역대기」의 저작 시기도 유배 이후입니다. 특히 「역대기」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2역대 36,22-23). 곧 히브리어 성경은 페르시아 임금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귀향하고, 성전 재건도 허락되는 내용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목을 전체 성경의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이는 구약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되던 기원후 1세기의 상황과 관계됩니다. 기원후 66년 열혈당원들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진압하던 로마 장군 티투스는 유대인들의 명예이자 자랑인 성전을 파괴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 명성황후를 시해한 상황과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암울함 속에서 백성이 절망하지 않도록,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6세기에도 바빌론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제1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대제국 바빌론은 이후 페르시아의 키루스 임금에게 정복당합니다. 키루스 임금은 바빌론에 끌려온 이스라엘과 여러 소수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저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신전도 지으라고 허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최종 편집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습니다. 대제국 바빌론도 주님의 계획 아래 무너졌으니, 제2성전과 관련해서도 구원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로마 역시 때가 되면 권세를 잃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라는 키루스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집트 탈출기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탈출 13,18; 33,1 등). 곧 과거에 주님께서 이집트 탈출을 이끄셨듯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역대기를 마지막에 배치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

「교회헌장」의 초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1회기

강한수 가롤로 신부 통합사목국장

1962년부터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4회기를 거치면서 1965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의회 결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헌장은 문헌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안전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성 요한 23세 교황이 이끈 제1회기에서는 「전례헌장」 「계시헌장」 「교회헌장」의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채택된 문건 없이 의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속개된 제2회기에서는 「전례헌장」이 채택되었고, 「교회헌장」은 새로운 초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기에서 「교회헌장」이 채택되었고, 「계시헌장」과 「사목헌장」은 제4회기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네 개의 헌장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인 「교회헌장」은 「인류의 빛」 (*Lumen Gentium*)이라는 제목으로 반포되었는데, 최종 문헌을 보기 전에 헌장이 완성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토론이 3회기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뜻이고, 그 논의 과정을 보면 헌장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회기에 처음 제출된 교회에 대한 의안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단되었던 교회에 대한 의안을 이어받은 것으로 오타비아니(Ottaviani) 추기경과 트롬프(S. Tromp) 신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초안에서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보장된 적법성과 효력을 지닌 거룩한 통치 체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은 거부되었습니다. 수에넨스(Suenens) 추기경은 공의회 시작 단계부터 초안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음을 인식하였고, 「교회헌장」은 ‘안을 향

한 교회’(ecclesia ad intra)의 관점과 ‘밖을 향한 교회’(ecclesia ad extra)의 관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곧 ‘신비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도 헌장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에넨스 추기경의 주관으로 새로운 초안이 필립스(G. Philips) 신부에 의해서 준비되었는데, 이 초안의 작성에 콩가르, 라너, 라칭거, 켈멜로트, 스킨레벡스, 도세티 등의 신학전문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1회기 중 성 요한 23세 교황과 함께한 한국 주교단

필립스는 신비로서의 교회에서 출발하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교회에 이르는 구상으로 「교회헌장」의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고, 많은 교부의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회기에 제출된 새로운 초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그려집니다. 🌐

- (1) 교회의 신비
- (2) 교계제도 (특히 주교직)
- (3) 하느님 백성 (특히 평신도)
- (4) 교회의 성화 소명

기억이 희망을 부끄럽게 하나요?

맑은 하늘의 순백색 구름은 참 예쁩니다. 미풍에 실려 떠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기쁨이 몽글거립니다. 이 순간 존재하는 제가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 부족함 없는 만족감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원치 않은 상황이 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는 것 말이지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집안의 문제를 상의하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는데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긴장이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누리던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데, 그 사실을 잊고 과거 어느 지점으로 달음박질하던 겁니다. 다 괜찮을 거라는 희망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마음도 비집고 올라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희망을 순식간에 압도하는 부정적인 기억 말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억의 정화(淨化)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기쁘게 잘 살다가도 과거의 기억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의 일이 마치 이 순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던 오늘은 사라지고, 불안한 과거와 미래에 가 있는 상태가 되어 '그래, 그때처럼 또 힘들어질 거야.'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바람이가 떠올랐습니다. 주택에 살다 보니 대문 안으로 고양이가 드나듭니다. 바람이는 자기 영역에 침입한 고양이를 매섭게 내쫓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고양이가 다녀간 그 시간만 되면 나무 데크에 코를 박고 킁킁거립니다. 고양이가 데크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발톱으로 나무를 박박 긁어댑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바람이가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는 사실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했던 고양이에게 쫓겨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를 아직도 거기에 있는 듯 착각한 것입니다.

기억에 매여 과거에 멈춰 있는 바람이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고양이 냄새가 나지 않는 다른 장소도 있는데, 나쁜 기억의 자리에서만 맴도는 바람이가 안쓰럽고 애처로웠습니다. 산책 나갈 때도 다른 때 같으면 신나서 뛰어갈 텐데, 데크 쪽만 쳐다보며 미련을 둡니다. 신났던 오늘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제의 나쁜 기억과 내일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있을 뿐! 바람이는 저에게 부정적인 기억이 희망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는 말씀을 이번 회년의 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나쁜 기억만 있을까요? 나쁜 기억조차 자기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견안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워질까요.

“인간은 본시 연약한 것이므로 제아무리 훈련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억을 가지고는 실패하기가 쉬우니, 생각을 끊고 고요와 평화 속에 있던 마음도 변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기억 때문인 것이다”(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중). ☪



교구
소식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일시 2/1(토) 15시 ~ 2(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성녀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걷는 존재의 길
교재 에디트 슈타인,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가톨릭출판사
대상 누구나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업무 청소년대상 교육 및 돌봄, 각종 행사 지원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모집 참조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제14회 정기연주회 초대

일시 2/15(토) 19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하이든홀
신청 무료
문의 010-8419-0073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일시 2/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 (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의정부교구 제146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2/21(금)~23(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전신자 성경 읽기 1/26(주일)~2/1(토) : 요한 4,27-42



2/22(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33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제33회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한국가리타스인터내셔널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사 · 피정 ▶▶

꽃동네 젊은이를 위한 성소 피정

일시: 2/8(토) 14시 ~ 9(주일) 15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고2 ~ 만 35세
주제: 사랑에, 머물다
회비: 5만원 (1인 1실, 사전접수)
문의: 010-4830-2820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3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문의: 010-2127-0032

가정선교회 2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2/1(토)
성가정 영성 피정: 2/12(수)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2/15(토)
시간: 12:30~16:50
장소: 가톨릭회관 1층,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 자세한 내용은 '가정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참조

2025년 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날짜: 1/22(수)~2025년 1/5(월) [총 10차]
1차: 1/22(수)~2/23(주일) / 감사피정: 2/24(월)
지향: 나라, 교회, 가정, 나의 성화를 위하여
오전: 목주기도 20단
오후: 봉헌 기도 (강의, 기도,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요 성모신심 미사

일시: 2/1(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8~5/17,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8~11/1,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

분도출판사 「간 김에 순례」 출간 기념 순례

날짜: 6/17(화)~28(토)
장소: 도나우, 알프스 수도원 및 성지
인원: 20~26명
지도: 김성찬 신부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분도출판사
※ 분도출판사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
날짜: 3/17(월)~26(수), 4/21(월)~30(수),
5/12(월)~21(수), 6/9(월)~18(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00만원 (10일) / 문의: 010-7451-9707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신자이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청 행사,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노들담 첫영성체 교리 연수

일시: 2/8(토) 09:30~17: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문의: 010-3829-7667
※ 다음 카페 "노들담 첫영성체" 검색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피에타스 시니어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대상: 성가대 경험있는 60세 이상 교우
연습: 매주(수) 20시,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직원 모집

영어권 이주민 관련 업무(상담, 통역)
인원: 1명
자격: 영어사용, 영문서 작성, 운전면허 소지
접수: 2/13(목)까지
문의: 031-948-8105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교구소식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활동운영팀)
접수: 2/16(주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문의: 031-820-7003

사이버성경학교 순례자 희년 수강자 모집

대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분
신청: 365일 신청 (홈페이지 참조)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 창단 단원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와 미사곡 연주(성가대원, 전공자 환영)
모짜르트 미사곡 고양아람누리 창단연주회 예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화) 19시
문의: 010-9842-8818 이호중 교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직원 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명 / 채용시까지
문의: 031-965-0028
※ 자세한 사항은 www.haemil.or.kr 참조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고료 지급 (채용시 마감)

Table with 5 columns: 성소모임,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의. Row 1: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사제를 지향하는 청소년, 청년,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2025년 한마음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2명 / 시설영선반 2명
근무: 월~주일 중 5일 (2일 휴무), 08:30~17:30
업무: 전처리, 세정, 배식 / 수련원 내외 보수 및 청소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에파타합창단 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목) 19:30
장소: 의정부 예술공장 다목적실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19)
오디션: 2/6(목) 19:30
오디션곡: 가톨릭 성가 55번 (소프라노 파트 부분)
문의: 010-5610-2327 박준희 스테파노
※ 문의는 문자로만 받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눈꽃산행: 2/7(금)~9(주일),
2/21(금)~23(주일), 2/25(화)~27(목)
자연순례: 3/1(토)~3(월), 3/8(토)~10(월)
추차도포함: 3/13(목)~16(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자수 매일미사 커버(소) 만들기

일시: 2/12(수), 19(수) 14시~16시 [총2회]
장소: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회비: 4만5천 원 (재료비 포함)
문의: 031-875-7004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화)~12(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4/5(토)~16(수) 회원 이탈리아 (독일항공, 435만원)
5/29(목)~6/10(화) 동부지중해 크루즈 (649만원)
문의: 02-2281-907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2일, 560만원)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1(월)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 대한항공)
4/21(월) 일본 나가사키 (139만원)
4/28(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9(금)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5/1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성지순례

3/18(화) 산티아고 도보 성지순례 (12일, 495만원)
3/24(월)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동반자 할인, 500만원)
4/23(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525만원)
5/3(토) 체코, 폴란드, 발칸, 메추고리에 (15일, 57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1025만원)
6/5(목) 올드레아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550만원)
문의: 010-3866-2533 가톨릭회관 619호

DIocese of Uijeongbu

피정

한마음 사계 피정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 한마음 사계 피정은 매일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Table with 3 columns: 주제, 날짜, 강사. Rows include: 하느님 길을 걷다, 하느님과 화해하기, 부활 신앙을 지니고 사는 의미, 교회의 신앙생활과 성모님의 영성, 예수 성심을 닮은 신앙인의 삶,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학, 희망의 등정, 성경으로 배우는 하느님의 일.

희년의 표징들 (3) - 기도, 전례

희년을 드러내는 네 번째 표징은 기도(Prayer)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지도와 같습니다. 순례의 목적지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발걸음이 무겁거나 지칠 때 쉴 곳을 찾아주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줍니다.

기도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 사랑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기도로 부르시고 각자 성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자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이번 희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자주 바친다면, 이 기도가 지닌 생생한 은총과 구원의 힘을 깨닫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년 기간 중 순례 여정에서 바치는 기도는 과거는 물론 현재도 그 길을 걷는 다른 순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실제로 많은 성인이 직접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치는 기도는 희년의 은총을 얻기 위한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희년의 다섯 번째 표징은 전례(Liturgy)입니다. 전례는 교회의 공적 기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르면,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입니다. 그리스도교 전례의 중심은 단연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으로 받아 모시는 성찬례의 거행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해주신 것처럼 당신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 24,29). 전례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일치하는 친교의 자리입니다.

희년의 특징적인 전례 예식은 성문을 여는 예식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예식의 시작은 다소 상징적으로 교황님이 성문을 감싼 벽돌 벽을 깨고 이후 석공들이 벽돌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50년부터는 성문을 가로막은 벽이 사전에 철거되고, 장엄 성가가 흐르는 중에 교황님이 첫 번째 순례자로서 외부에서 성문을 밀고 통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문을 여는 예식 외에도 성년에 거행되는 다른 모든 전례는 희년의 순례가 개개인의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여정임을 드러냅니다. ☀

희년의 특징적인 전례 예식은 성문을 여는 예식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예식의 시작은 다소 상징적으로 교황님이 성문을 감싼 벽돌 벽을 깨고 이후 석공들이 벽돌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50년부터는 성문을 가로막은 벽이 사전에 철거되고, 장엄 성가가 흐르는 중에 교황님이 첫 번째 순례자로서 외부에서 성문을 밀고 통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문을 여는 예식 외에도 성년에 거행되는 다른 모든 전례는 희년의 순례가 개개인의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여정임을 드러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7일 (안젤라): 신은석
31일 (돈보스코): 한동욱

전례

■ 설 합동 위령 미사

1월 29일(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1월 26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합동 위령 미사 시간: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설 연휴 끝날인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흥승권(대건안드레아) 신부님 은퇴 감사 미사

일 시: 2월 2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 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2월 봉성체

일 시: 2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초 축성 및 봉헌 안내

2월 2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에 1년 동안 성당 제대에 사용할 밀납 초를 봉헌하실 분과 가정에 사용할 초를 구입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 신청 바랍니다. 제대 사용 봉헌 밀납 초: 1개 60,000원
가정용 초: 1개 5,000원

■ 연령회 1월 월례회의

일 시: 1월 26일 오늘(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성탄 구유예물 교구 청소년 밥집 후원

2024년 성탄 구유예물 1,509,000원 전액을 교구 청소년 밥집 포이마이노에 후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 13일 - 1월 19일)

교 무 금	5건	2,250,000원
주 일 헌 금		948,000원

■ 감사 헌 금

이미경	10,000원	배현숙	300,000원
정유진	2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1월 26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02월 02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